국내
긴급시황

2026.3.3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증시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에 대한 의구심 지속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중동 사태 확전 양상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며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4%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11시 기준). WTI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브렌트유는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 증시의 하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4월 6일까지 열흘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이란은 트럼프에게 공격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1만 명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언행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 진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둘째, 중동 사태의 확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참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의 해상 운송 경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부상하면서 에너지 위기 심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 이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 당사는 여전히 '선 휴전 후 협상'을 유력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전면전은 불가역적이며 양측에 기하급수적 비용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협상 이후에는 아랍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손상 여부, 복구 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2차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까지 사태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서 투매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 최근의 주가 조정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음은 주목해야 합니다. KOSPI 5,300pt 기준 12개월 예상 P/E는 8.4배, P/B는 1.41배 수준(LSEG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12개월 예상 ROE는 16.9%인 반면, P/B 1.41배에 내재된 ROE는 10.8%로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일정 부분 안전 마진이 확보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